김외숙 법제처장, “과학기술 분야 규제 살펴보겠다”

– 과학기술분야 전문가들, 신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요청

■ 법제처(처장 김외숙)는 7월 5일 **과학기술정책연구원**(세종국책연구단지 내 소재)을 방문해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및 과학기술 전문가들과 **‘과학기술 분야 규제 법제 개선’ 을 위한 간담회**를 가졌다.

● 이날 간담회에는 **김외숙 법제처장, 조황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**을 포함해 과학기술분야 전문가* **10여명이 참석**했다.

* 과학기술정책연구원(STEPI), 동국대, ETRI, KIST, 항공우주연구원, 에너지경제연구원,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,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



■ **사례를 들면서 개선을 건의**했다.

■ **주요 의견으로는,**

● 비행금지공역에서는 항공기 등의 비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무인비행장치(드론)는 종류나 특성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*는 의견,

* 「항공안전법」 및 같간담회 참석자들은 과학기술 관련 규제가 신기술·신산업 분야의 발전을 저해하는 은 법 시행규칙 개정

●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해 데이터 기반 사업 육성을 위해 산업별로 산재된 복잡한 개인정보관련 법령을 통합하는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,

● 전기요금의 과도한 규제 및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다양한 에너지 신기술의 적용 및 에너지 신산업 시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.

* 「전기사업법」 개정



법제처, 「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」 발간

■ 법제처(처장 김외숙)는 7월 13일 자치법규를 입안할 때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을 종합 · 정리한 「**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**」**를 발간**했다.

- 4년 전에 발간한 「자치법규 입안 매뉴얼」에 법령 제정 ·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, **최신 판례, 주요 의견제시 사례, 자치법규 입법례 등을 보완 · 정비**한 것이다.

■ 「**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**」는 자치법규를 제정 · 개정할 때 알아야 하는 **법리적 쟁점이나 입법기술적 사항**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리한 책으로,

-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, 총칙 · 본칙 · 부칙의 세부 입안기준, 자치법규의 개정 · 폐지 방식, 용어와 표현, 문장 작성의 원칙 등이 상세하게 담겨 있다.

■ 법제처는 이번에 개편된 새 책자를 지방자치단체(의회 및 교육청 포함)를 비롯해 국회, 법원,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등 **600여개 기관에 배포**한다.

- 또한, 국민 누구나 법제처 홈페이지(www.moleg.go.kr)를 통해 손쉽게 **전자파일로 내려 받을 수** 있도록 할 예정이다.

■ **김외숙 법제처장**은 "「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」가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**여러 법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의 길라잡이 역할**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"라고 말했다.

■ **김외숙 처장**은 "신기술 · 신산업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**현장에서 규제로 체감하는 부분에 대한 개선이 중요**"하다며,

- "제안된 의견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**관계 부처와 면밀히 협의**해 신기술 · 신산업 분야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"라고 밝혔다.



법제처장, 예비 법조인들과 법제역량 강화 간담회 가져

– 법제처, 제18기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실무수습 과정 진행

■ 법제처(처장 김외숙)는 7월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국 15개 법학전문대학원학생(로스쿨) 15명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.

● 이번 간담회는 법제실무 능력을 겸비한 전문 법조인 양성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로스쿨 실무수습에 대해 소감을 청취하고 수습생들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이다.



■ 법제처는 **7월 9일부터 2주일 동안** 정부세종청사에서 로스쿨 재학생을 대상으로 **제18기 로스쿨 실무수습을 실시**하고 있다.

● 법제실무 역량을 갖춘 전문 법조인 양성에 기여하려는 취지에 맞게 **법령 심사·해석, 법령정비, 자치법제지원** 등 법제처의 주요 업무에 대한 **이론과 실무 교육**을 병행하면서,

● **법령안 합동심사회의, 법령해석 합동검토회의에 참관**해 직접 의견을 개진하는 등 법제 업무를 보다 내실 있게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.

■ **김외숙 처장은** "법제처는 법령을 만들고 해석하고 정비하는 등 **법령에 관한 모든 단계를 아우르는 중앙행정기관**"이라며,

● "과거 법조인들이 걸었던 길만 따르지 말고 **행정과 입법 영역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**하길 바라고 우리 사회의 **불합리를 찾고 개선하는 역할**을 해 달라"고 당부했다.



■ 간담회에 참석한 **김상광 수습생**(경희대 로스쿨)은 "교과서 속의 활자가 아닌 **생생한 경험**으로 법령의 입안과 해석업무를 느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" 면서

- "특히 법령 하나를 만들고 해석함에도 **깊은 고민과 세심한 정성**이 얼마나 필요한지 직접 느낄 수 있었다" 고 말했다.



■ 또한 **원준희 수습생**(아주대 로스쿨)은 "쟁점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법제업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" 면서,

- "**국민의 권익향상을 위한 공직자들의 열정**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, 우리 사회를 보다 밝게 만드는 법조인이 되어야겠다" 고 소감을 밝혔다.

■ 한편, 법제처는 **2010년부터 총 17회**에 걸쳐 동·하계 방학 기간 동안 로스쿨 실무수습을 실시해 왔다.

- "총 **818명의 예비 법조인**이 실무수습을 수료했고, 법제처의 특색 있는 업무과정 경험 등 현**장감 있는 실무경험과 체계적인 프로그램**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.